

■ 어제 제11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88만원 격차

제주 남녀 임금격차 27.7%... 다양한 성차별 누적 결과 가사·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96.4% 차지 기혼여성 10명 중 1명 경력단절... 남성 육아휴직 15.5%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제주의 현주소는 ‘여전한 격차’로 요약된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의 골레는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남녀 임금격차는 8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29만2000원으로, 남성 317만1000원에 비해 약 27.7% 낮다.

성별 임금격차는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났다.

제주도가 여성의 날을 맞아 도청

누리집에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임금 공시’에 따르면 도내 산하 17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여성 직원들은 남성보다 약 22.2%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경에는 남녀 간 일자리 질의 차이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가사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7%로 전국 여성보다 9.4%포인트 높지만 제주 남성(76.3%)보다는 10.6%포인트 낮다. 게다가 불안정한 임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28.5%로 남성(16.5%)보다 12%포인트 높다.

가사·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압도적이다. 제주에서 가사·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은 96.4%(약 5만3000명), 남성은 3.6%(약 2000명)로 수십 배의 격차가 났다.

제주지역 기혼 여성 10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15~54세 도내 기혼 여성은 약 10만5000명으로, 이중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약 1만명(9.5%)이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51.3%)가 가장 높았고 결혼(23.4%), 임신·출산(14.4%), 가족돌봄(8.9%), 자녀교육(5.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사노동 부담도 여전히 여성이 3배가량 많았다. 일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 2시간 50분, 남성 1시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5.5%로 얼마(73.7%)보다 58.2%포인트 낮았다.

김혜선 노무사(제주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는 “직장 내 직급이 높아질수록 특정 성별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경향이 있고,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임금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이은숙 제주여민회 대표는 “성별임금격차는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고용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며 “돌봄, 가사노동, 인사·보수 규정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개인오수처리시설 3289개소 집중점검 제주시, 실태조사 용역 착수... 수질 분석 확대

제주시가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해 ‘2026년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점검 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하다고 판정된 C·D·E등급 3289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 기존 E등급에만 실시하던 수질 분석을 D등급까지 확대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용역 수행 전문 관리업체는 조건 등 5개 읍·면을 방문해 전기 설비 상시 가동 여부, 내부 청소 상태, 시설 노후화 및 고장 유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올바른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전문 기술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토지 거래 서귀포 중심 기지개?

2월말 기준 전년 동기 비 필지수·면적 나란히 증가 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검토... 결과 주목

올해 들어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기지개’를 쳐고 있는 형세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인근에서 큰 면적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며 제주도 차원의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올해 누적 토지거래 현황은 3765필지·241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00필지·224만8000㎡에 비해 필지수는 10.7%, 면적은 7.2%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430필지·132만9000㎡로 전년도 동기의 2410필지·140만1000㎡에 견줘 필지수는 소폭 늘었으나 면적은 5.1%가량 줄었다. 서귀포시는 1335필지·108만1000㎡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990필지·84만7000㎡에 비해 필지수 34.8%, 면적 27.6% 각각 상승했다.

이에 대해 도는 남원읍 남원리(2만4000㎡)·신흥리(1만5000㎡), 표선면 표선리(신택 1건 총물건 50건)·토산리(28건) 등에서의 대규모 토지 거래와 함께 성산읍 오조리 소재 공동주택 거래 건 다수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풀이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주거지역이 1336필지·18만㎡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176필지·13만5000㎡에 비해 필지수 10.7%, 면적 33.2% 늘었다. 반면 상업지역은 391필지·1만3000㎡로 전년도 동기의 351필지·1만5000㎡

에 견줘 필지수는 11.4% 늘었으나 면적은 되려 11.2% 줄었다. 서귀포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모두 증가했다. 농업지역과 녹지지역도 이 기간에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읍면지역의 토지 면적 기준 증가율은 ▷제주시 동지역 14.0%, 애월읍 31.9%, 한경면 27.1% ▷서귀포시 동지역 12.2%, 대정읍 36.0%, 남원읍 20.8%, 안덕면 193.7% 표선면 2.9% 등이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의 경우 공동주택 거래로 필지수는 124.2% 늘었으나 면적에선 지난해보다는 17.5% 감소했다. 제주시에선 한림읍(-9.0%), 구좌읍(-34.0%), 조천읍(-34.2%)의 토지거래 면적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도는 내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실질적인 성평등을”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낭독·거리행진 진행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제주지역에서도 기념대회가 열렸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모인 3·8제주여성대회집행위원회는 제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제주지역 여성대회를 열고 실질적 성평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올해 제주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약속을 지키는 제주, 페미니스트가 만든다!’이다”며 “여기에는 제주평화인권현장의 약속을 지키는 제주, 파면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평등한 삶의 변화로 완성하는 제주, 그 중심에 여성주권자가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평화와 인권, 성평등을



지난 7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주지역 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백소정기자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제도로 구현돼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라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는 그 실현의 책임을 2026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묻고, 선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성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와 행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실효성 있는 젠더폭력의 대응

정책 실행, 기후위기 대응에 성평등 관점 반영,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 낭독 후 제주시청을 출발해 구세무서 사거리에서 다시 제주시청으로 2km 이 어지는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백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경풍 耕豊
염소탕 삼계탕 전문점
064-742-7047

since 2004

경풍

기력 보충이 필요할 때?
염소탕·삼계탕 전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일시장 어물전 앞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던 경풍이 염소탕, 삼계탕 전문점으로 메뉴를 변경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오일시장 어물전 앞 ☎ 742-7047 ※ 주차장 완비 / 단체 환영

경풍식당
입구
세븐일레븐
공영 P
제주민속 오일시장
공영 P
공황사로
일주서로
월랑초
오일시장 진입
제주서중